



신 셋 별 영파여고 3학년

## 전태일 평전을 읽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외침이 포크레인 삽날에 찍혀  
청계천이 복원되고 있었고  
아득한 옛날에 한 노동자가 석유를 끼었고 죽었다는 전설조차도  
이젠 믿지 않으려 한다  
책 속에서 실밥이 풀풀 날아오르고  
밤새도록 밤일을 마친 열사의 고단한 잠 속으로  
라면 가락이 툭툭 불어터진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수돗물로 배를 태워야 했던 그 오빠는  
가난한 누이들을 보며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재봉틀 속에 자꾸 감겨지는 가난한 삶의 흔적들  
취꼬리만한 잔업수당을 받기 위해 눈을 부비며  
청계천의 밤을 밝혔던 그 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새벽 시간 동대문 밀레오레에 가면  
그들의 피땀어린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새 상품으로 쏟아져 나온 옷들이  
말간 눈을 뜨고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옷 속에 숨겨진 열사의 외침이  
눈을 뜨는 새벽이다.

국무총리상

## 자율학습 시간

눈을 치켜뜨면서 잠을 몰아내려고 한다  
형광등 불빛에 눈을 찢리면서  
고된 항해 끝에 도착한 입시의 문턱에서  
우리는 낯선 경쟁자가 되어 서로 남모르는 피를 흘리고 있다  
천호동의 밤은 깊어가는데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춤을 추고  
술 취한 취객이 골목에다 욕설처럼 오줌을 싸고 있다  
나는 골목에 들어섰다가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고  
자꾸만 따라오는 남자를 피해 언덕길을 달리고 있다  
등이 시린 판잣집에는 벌써 불이 꺼지고  
엄마는 대문밖에 내보일 것이 없는 골목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엄마, 세상이 무서워요 라며 품속으로 뛰어들면  
어둠도 치맛자락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늦은 귀가의 아버지는 곤드레가 되어  
문을 두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자율학습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맞아들인다  
새벽 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는 노동자들처럼  
나는 책 속에서 한 올 한 올 실밥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